

보 도 자 료

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◆ 담당자

강민구 문화홍보실장 ☎032-770-8631

지준화 선임연구원 ☎032-760-5346

◆ 2021. 6. 2. (수) 배포

◆ 총 3쪽 (본문 2쪽, 첨부 1쪽)

북극의 미래 예측할 AI기술 모여라

극지연, 북극해빙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... “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”

- ‘북극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’ 북극 바다얼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이 경쟁을 벌인다. 극지연구소 (소장 강성호)는 오는 6월 30일까지 ‘북극 해빙예측 AI 경진대회’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
- 북극 해빙 (바다얼음)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빠르게 녹고 있으며,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여름철 기준으로 면적이 40%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.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, 2050년 여름 북극 바다에서 얼음을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.
- 북극 해빙의 감소는 중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파나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만, 얼음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북극항로와 수산·지하자원은 새로운 기회로 꼽힌다.
- 북극 해빙 예측에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자료가 사용되는데, 수십 년간 기록된 자료의 양과 자연현상의 불규칙성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. 최근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.

- 이번 경진대회는 숫자로 표현된 과거와 현재의 해빙 정보를 분석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, 북극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에 관계없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.
- 참가자들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관측된 해빙 자료를 제공받아 올해 7~9월 북극해빙의 변화를 주 단위로 예측하고, 예측결과가 실제 해빙의 변화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받는다. 이 기간은 국내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실제 북극에서 활동하는 기간이다.
- 수상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되며, 수상자들에게는 총 상금 600만원과 공동연구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. 참가 방법과 세부일정은 인공지능 플랫폼 DACON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지난 3월에는 북극 해빙의 변화를 월 단위로 예측하는 예비 대회가 진행됐는데,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660팀이 참가했다.
-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“북극 과학 활동 확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북극해빙 예측 프로토타입 모델 개발 연구 (책임자: 지준화 선임연구원)”를 수행하고 있다.
- 김현철 극지연구소 원격탐사빙권정보센터장은 “대한민국의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질 학생들이 인류의 최대 현안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붙임1. 북극 해빙예측 AI경진대회 공고문

붙임1

북극 해빙예측 AI 경진대회 공고문

북극 해빙예측 AI 경진대회

시계열 | 비전 | 극지연구소 | 북극 | 해빙 | MAE/F1

🏆 상금 : 총 600만원

🕒 2021.05.10 ~ 2021.06.30 17:59 [+ Google Calendar](#)

👤 263팀 📅 D-30



참여

대회안내

데이터

코드 공유

토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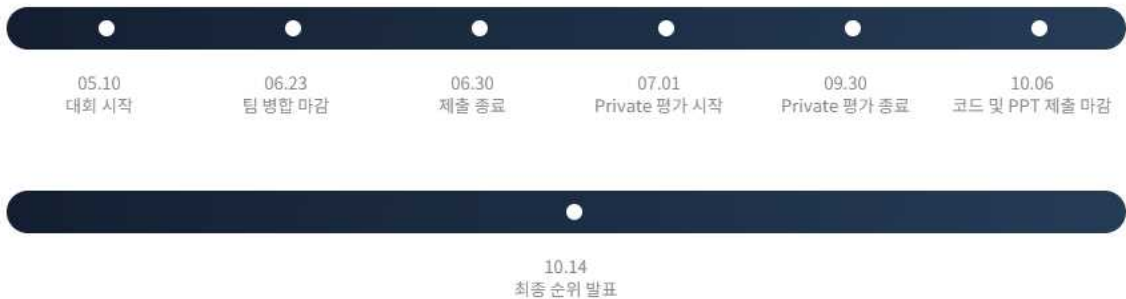
대회문의

리더보드

팀

제출

대회 주요 일정



극지연구소